

절로 가는길은 험해야 제격



<7> 무량자비 바다-고해의 길

나는 '아름다움'이란 말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가 보다. 그래서 TV에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세상엔 별 게 다 있다)를 보면서, 우리 애와 진·선 미 맞추기 내기를 하면, 내 예상은 번번이 빗나가고, 난 늘 손해만 보게 된다. 이런 내 약점을 뻔히 아는 우리 애는 이럴 때면 으레 나와 내기를 하자고 조른다. 나는 물론 번번이 당하기만 하고 뭐가 아름다우냐고?

활영을 갈 때, 울긋불긋 화려한 꽃이나, 냇가를 지날 때 수없이 감탄사를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시끄러운 정도로, 아름다움, 맛있다, 좋다는 말을 쏟아 붓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이런 이들이 부러워 나는 오히려 그들을 보고 감탄한다. 그리고 그런 호들갑에 나는 그저 예의상 명달아 고개를 끄덕여 주거나 건성으로 찬사를 몇 마디 던지곤 하지만 솔직히 뭐가 아름다운 건지 실감할 수 없다. 그래서 난 내가 혹시 목석이거나, 미적 감각 환자가 아닌가의 의심을 해 보기도 한다. 꽃이 그렇게 아름다우냐고?

내가 또한 가지 그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건 '행복'이란 말이다. 행복? 난 내가 행복하게 살아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행복하다는 게 뭔지, 도무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다. 돈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고, 집안에 근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저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내면 그게 행복한 걸까?

중학교 때 훈육 선생님이 댄 훈육 선생님이 따로 있었는데, 아주 무서운 분이였다 한 분이 새로 부임해 오셨다. 첫 시간에 들어오시더니, 교탁앞에 서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크게 교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큰 소리로 일갈하셨다. 내 별명이 호랑이다! 기분이 장대하고, 손바닥은 습주경만 하고, 게다가 목청마저 우레와 같이 평평 울리는 선생님을 보고, 우린 이런 엄포가 아니라요 좀 걸로 장난 아니네! 진짜 호랑이가 나타났구나 싶어, 모두 기가 죽어 쥐 죽은 듯 숨도 제대로 못쉬고 지냈다. 그런데, 우리 나라 호랑이는 역시 인자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는 그 호랑이를 '인왕산 호랑이'라고 부르며 따르게 됐다.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서양의 명연수구의 명연인지 지금은 잊었는데를 인용하며, 우리에게 훈육했던 말씀이 어린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의 말이 생생히 떠오르며, 나의 일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눈물 섞인 밤을 먹어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행복! 참 좋은 말이다. 사람은 이 행복이란 파랑새를 잡으려 먼 산도 마다하지 않고 즐기게 해준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려고 잡는 건 파랑새가 아니라 황금새다. 그리고 그 황금새를 깃털부터 파먹으며 스스로 황홀해한다. 가끔은 콩고물도 뿌리면서 즐거워한다. 그럴까?



▷대선산테고사가는 길.

고행거쳐 피안에 도달한 부처님이 계신 절 편하게 찾길로 가기보다 울퉁불퉁 돌길 좋아보여

행복! 그래, 난 행복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허망해진다. 그것이 꿈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될 때,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 슬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수많은 중생이 이 삶의 바다에서 부유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아니, 삶 그 자체가 고통인 것을 나는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이다.

요즘은 점에 가는 길도 고속도로처럼 잘 되어 있어서 아주 편하다. 찾길로 일주된 열로 스쳐

지나가고, 사천왕문도 빙거 지나가서 대웅전 앞마당까지 닿는다. 깊은 산 속에 있는 절도 스님만 다니는 찾길로 그렇게 따로 나 있다고 한다. 신도와 스님이 편하게 다니라고 그런 것이란다.

고타마 싯다르타는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고, 이름 모를 풀잎으로 굶주림을 달래며 고행을 하셨다. 나무처럼 돼 버린 몸과 머리를, 까치가 나무인줄 알고 꺾어먹을 지어했다고 한다. 절이 부처님 계신 곳이라면, 절로 가는 길 역시 부처님이 겪으셨던 그 고행의 길이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괴로운 삶의 바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별거 아닌 인생을 행복하다고 즐거워하는 사람(사람만이 행복, 불행은 따지지)을 보면, 보신망집 개장 안에서 물색 없이 뛰노는 누렁개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나는 험한 산길을 좋아한다. 더욱이 절로 가는 길은 험한 돌길이 제격이다. 그래서 난 일부러 아스팔트길을 벗어나 산길로 돌아가기를 좋아한다. 그게 꼭 즐겁고, 내 격에도 맞는다. 인생이 무엇이기에, 전생(사건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참 진리 '인연법' 가르쳐

한글대장경의 세계

상아함경

6.전륜성왕수행경
부처님이 사념처관(四念處觀)을 가르친 경이다. 유행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차지연법(自燃燒法) 불타치연(不他燒然) 자귀의(自歸依) 귀의어법 불타귀의(佛依於法不他歸依)'를 설하고 있다.

7.폐속경
가심중자가 계속 바라문의 약견사설(惡見邪說)인 단편(斷片)을 12종의 비유로써 파절하여 다른 세계와 인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 내용이다.

8.산타나경
산타나 거사가 오잡바리의 범치여림(梵志女林)에서 5백의 범자에게 부처님을 설복하기 쉽다고

말하자 이를 천이(天耳)로 들은 부처님이 범자들의 고행처를 찾아가 5계와 10선, 4부 망심을 닦아 보리를 얻는 길을 가르친다.

9.중집경
부처님이 파바성에 있을 때 배풍(背風)으로 괴로워하시자 사리불이 대신하여 설법의 형식을 위한 내용이다. 지나교의 분열된 모습에 대해 그 법이 진정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라 진단하며 여러의 법이 진정한 해탈도의 가르침임을 설하고 있다.

10.십삼경, 11.중일경 12.삼취경
중집경과 같은 경우로서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설법하신 것으로 법상(法相)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중일경과 삼취경도 같은 경우이다.

13.대연방편경
부처님이 아난에게 불교의 근본교의를 말씀하

신 것 인연법을 순역(順趣)생명의 관법에 따라 설명한다.

14.석제환인문경
일체중생의 원결(緣結)은 탐욕과 질투에서 생기고 탐욕과 질투는 애증(愛憎)에서 생기고 애증은 욕(欲)에서 생기고 욕은 상행(相行)에서 생기고 상은 조회(調劑)에서 일어나므로 조회를 없애면 원결도 없어지고 서로 상해함도 없어진다고 가르친다.

15.아누이경
명년국의 아누이성에 있던 부처님이 외도를 위하여 선속비구의 예를 들며 해탈도를 가르친다.

16.선생경
선생장자가 아버지의 유착에 따라 육방에 예경하는데 부처님은 그 진정한 의의와 내용을 가르친다.

17.청정경
주나사 사미가 외도와외의 다름에 대해 얘기하자 부처님은 무정(無情)의 정법을 가르친다.

18.자환회경
사리불이 부처님의 공덕과 위신력을 찬탄하자 부처님은 부처를 지향할 것이 아니라 법을 지향해야 한다는 법 지상주의(法至上主義)를 가르쳤다.

19.대회경
부처님이 석시제국 가우림에 있을 때 시방의 모든 신과 요천(妙天)들이 그곳에 모여 삼보를 예경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였으므로 자신을 위시하여 제석천왕에 이르도록 모든 신 및 모든 권속신의 환위(歡慰)할 마음을 행복 받기 위하여 부처님이 주문을 외운다.

20.아미주경
부처님의 32상에 대해 의심을 하는 아미주를 위해 부처님은 중생의 인연을 설명하신다.

임연태 뉴미디어 부장

“원결은 탐욕질투에서 탐욕질투는 애증에서 애증은 욕심에서 생겨”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봉사, 역경 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80-3893, 역경후원금 온라인 통합 078-02-0790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가야산 범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 정신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중량 3,300관

